

주몽 후예들



신화를 쏜다

예산 ‘달빛동맹’

광주·대구시장 국회의원 16명
공동·지역별 현안 국비 요청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양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단순한 친선교류에서 시작된 ‘달빛(달 구별-빛고을) 동맹’이 역사교류를 거쳐 이제 예산을 매개로 한 경제동맹으로까지 진화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양 지역 공동현안 사업과 각 지역별 현안사업,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에서 윤장현 광주지사를 비롯한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6명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대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재욱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9명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참석했다.

광주와 대구시는 이날 ▲미래형자동차산업 선도도시 기반구축 ▲광주~대구 간 철도건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 광주와 대구 공동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역 현안으로 ▲광주군 공항 이전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 양여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2단계) 조성사업 ▲에너지밸리조성 특별법 제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내면세점 설치 관련 아특법 개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삼보드로무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여자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최미선(왼쪽부터), 기보배, 장혜진이 금메달을 확정 짓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결승 1세트에서 한국은 6발의 화살이 모두 10점에 명중해 퍼펙트스코어를 기록했다.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여자 양궁 단체전 8연패 ... 32년 ‘한국 天下’

〈1988~2020〉

광주시청 기보배·광주여대 최미선, 장혜진...러시아 꺾고 금메달
서향순·주현정 등 광주·전남 신궁들 맹활약 세계 무적 ‘할시위’



▶관련기사 2·3·20면

기보배(28·광주시청)가 9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삼보드로무 양궁장 사대(射臺)에 섰다. 결승전 상대인 러시아는 마지막 화살을 모두 쏜 상태였다. 8점 이상만 쏘면 우승이 확정된다.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시위를 당겼다. 과녁 판정단이 과녁에 다가가더니 이상 없음(8점)을 알렸다. 기보배·최미선(20·광주여대)·장혜진

(29·I.H)이 팔을 치켜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세트 스코어 5대 1. 한국 양궁 여자대표팀이 러시아를 꺾고 ‘올림픽 8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그 어렵다는 올림픽 금메달을 양궁 단체전이 도입된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무려 28년 간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올림픽 전 종목을 통틀어 8연패 이상을 달성한 팀은 한국 여자양궁을 포함해 3팀뿐이다.

정상을 지켜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한국을 겨냥한 세계 양궁팀의 견제와 경기장



서향순

의 소음·바람 등 악조건을 뚫고 선·후배궁사들이 곳곳하게 버텨낸 1위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는 훨씬 크다.

기보배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8연패를 달성해서 기쁘다”면서 “선배들이 일궈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28년간 세계 양궁의 ‘신화’를 이어



주현정

올 수 있었던 데는 광주·전남 ‘신궁’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곡성 출신의 서향순(49)이 지난 1984년 LA올림픽 때 여자선수 최초로, 최연소로 개인전 금메달을 딴 이후 광주·전남 여궁사들의 기록은 한국 양궁 기록에서 빼놓을 수 없다. 서향순은 당시 광주여고 3학년이었던 17살 때 국가대표에 발탁돼 올림픽에 출전했고 올림픽 신기록(종합점수 2568점)으로 당대 ‘신궁’이라는 김진호(2555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보배는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도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이었다. 기보배는 당시 7연패의 위업 뿐 아니라 개인전까지 석권하며 ‘여자 신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무안 출신으로 ‘세계랭킹 1위’ 최미선은 기보배를 이어 양궁 스타로 성장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곡성 출신의 주현정(34)이 단체전 6연패(連覇)를 이뤄냈다. 그는 두암초·동명중을 졸업하고 광주체고·용인대를 거쳐 태극마크를 달았고 2010년까지 대표팀 맴돌던 후배들을 이끌며 단체전 정상을 지켰다.

지역 궁사들의 미래 활약도 기대되고 있다. 이특영(27·광주시청), 이은경(19·순천시청)은 지난 3월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양궁 국가대표에 기보배·최미선과 함께 뽑혔다.

안산(여·16·광주체육중 3년)은 최근 열린 ‘제 42회 문화체육관광광장관기 전국남여양궁대회’에서 무려 6개의 금빛 과녁을 명중, ‘6관왕’에 오르며 양궁 유망주로 떠올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펼 펼 끊는 광주...대구보다 덩다

올 열대야 발생 광주 16일·대구 7일

광주+아프리카 ‘光프리카’ 신조어도

올 여름 광주의 열대야 발생 일수가 한 반도 대표 무더위 도시 대구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면〉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이 인터넷 포털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는 옛말, 이제 ‘광프리카(광주+아프리카)’

떠오르는 다크호스”라는 글을 올릴 정도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7~8월) 광주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이날 오전을 포함해 총 16일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날씨가 알려진 대구는 올 여름 열대야 관측 일수가 7일로 집계됐다. 광주보다 무려 9일

이나 적게 나타난 것이다. 열대야는 기상관측지점의 아침 최저기온(오후 6시~오후 9시)이 25도 이상인 날을 가리키는 기상용어다. 기온이 밤에도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너무 더워서 사람이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폭염과 함께 더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한다.

열대야 관측 일수 뿐만 아니라 ‘광주도 대구 못지않게 덩다’는 지표와 통계는 기상요소 곳곳에서 나타난다.

최근 5년 여름 동안 두 도시의 낮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기온 역전’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일 최저기온(7월 평균)의 경우 지난 ▲2012년 광주 23.2도, 대구 23.7도 ▲2013년 광주 24.5도, 대구 25.1도 ▲2014년 광주 21.8도, 대구 23.1도 ▲2015년 광주 22.2도, 대구 21.3도 ▲2016년 광주 23.7도, 대구 22.6도로 조사됐다.

낮 최고기온도 지난 2015년 7월 평균값이 광주 29.7도, 대구 29.5도를 기록해 일 시적이지만 기상관측 대표지점을 통해 집계된 여름철 1개월 낮 최고기온이 대구를 뛰어넘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힘내라 코리아! Rio2016

9일(화) 〈한국시간〉
04:44 양궁 개인전 64강 기보배 출전
07:30 역도 62kg급 한명목 출전
08:30 여자 배구 한국 vs 러시아
09:00 사격 25m 권총 김강미 출전
10:45 펜싱 에페 개인전 박경두 출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평화대학교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16년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제작지원사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광주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2016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제작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획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기획창작 웹툰 제작지원
지원기간	2016. 9월 ~ 2017. 3월(7개월)	
지원규모	총 지원금 4억9천만원 내외 (7개 과제내외)	총 지원금 1억5천만원 내외 (5개 과제내외)
지원대상	신규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만화 기성작가 또는 신인작가
접수마감	2016. 8. 18(목) 17:00시 까지	

세부사업내용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itct.kr

